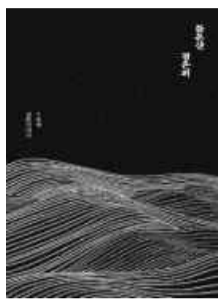


해방 후 첫 민중항쟁 '화순탄광사건' 조명

광주 출신 오봉옥 시인

장편 서사시 '붉은산 검은피' 출간
1989년 발간후 33년만에 재개정
아픈 가족사 통해 뒤틀린 역사 조명



서사시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창작한 시'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대개 신화나 전설 또는 영웅의 이야기가 주요 모티브로 작용한다. 고전적 의미의 서사시는 영웅의 전설이 구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웅의 전설이나 신화 외에도 민중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을 한 서사시들도 많이 등장하는 추세다.

지난 1946년 '화순탄광사건'을 배경으로 한 장편서사시가 출간돼 화제다. 광주 출신 오봉옥 시인이 펴낸 '붉은산 검은피(술)'는 제목만큼이나 강렬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준다.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해방 이후 첫 민중항쟁으로 알려진 '화순탄광사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당시 큰아버지가 화순 탄광 광부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큰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뿐 아니라 당시 해방 이후의 굴곡의 역사를 장편서사시로 구체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시인에 따르면 화순탄광사건은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처음으로 민중을 학살한 사건이다. 당초 시집은 지난 1989년 처음 출간됐고 이번이 전면 개편해 개정판이 나왔다. 시집 출간 이후 1990년 시인은 '이적출판물' 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필화를 겪었다.

일반적으로 '탄광'하면 검은산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인은 '붉은산'으로 치환해 죽음의



오봉옥 시인.

의미를 강렬하게 상징한다. 아울러 붉은피 대신 '검은피'로 표현해, 그날의 참상과 아픔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33년 만에 시집을 재개정 출판한 것에 대해 오 시인은 "시집의 첫 출간과 잇따른 판매금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복잡한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쩌면 우리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급한 대로 시인의 큰아버지는 당시 화순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다. 이번 시집에서 주인공 '석'이는 큰아버지로 치환된다. 시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이 일어난 해는 1946년이다.

"해방 1주년을 기념하는 1946년 광부들은 광주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3000명 정도가 열을 지어 너릿재를 넘어갔습니다. 당시 미군정 때인데 미군이 막아섰지요. '미군이 좌익에서 개최한 기념식이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했나 봐요. 그러자 '광부들이 왜 우리를 막느냐'하며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기념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잔혹하게 진압을 하기에 이릅니다."

시인은 당시 사망자가 20여 명, 부상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평범한 광부들이 얘기지

않은 사건으로 좌익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당한 것이다.

시인은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큰아버지를 위무하는 데" 작품의 초점을 맞췄다. 현대사의 아픈 가족사를 통해 우리의 뒤틀린 역사를 조명하자는 취지였다.

"모르지/ 열두 살 석이는 모르지/ 범패이 당춘 아집 집 밑에 거기/ 찢금만한 오두막집 사는 석이는/ 아무것도 모르지/ 죽은 지 아버지가 장가를 때/ 비지계에 검정 가마솔 하나/ 달렁 신평 온 것도/ 누가 볼새라 보랏대로 덮어서/ 몰래몰래 신평 온 것도 모르지/ 모르지/ 지 어머니 시집올 때/ 비를 진 오가리에 뒀장 반쯤 담아와서/ 몰래몰래 살아 온 것도 모르지"(『제1장』중에서)

큰아버지의 일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불우한 시대가 낳은 희생양이었다. "지주가 자신의 아들을 정용에 보내지 않으려고 큰아버지를 대신 보냈다"는 말에서 당시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을 읽을 수 있다. 정용을 갔다 온 이후 큰아버지는 화순 탄광 광부가 된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지만 어떤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됐다"며 "역사에 묻힌 '화순항쟁'을 시집으로나마 새롭게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원식 문학평론가는 "이젠 터널이 뚫려 옛길로만 남은 이 고개는 1894년 농민전쟁 때 동학군이 죽은 동무들의 관을 끌고 내려왔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고 의미를 밝힌다.

이번 시집에는 '서시1', '서시2', '서시3'을 전면 배치했는데 화순탄광사건 외에도 동학이나 독립운동, 5·18 때 죽어간 이들을 다룬 내용 등이 등장한다. 서사시의 가장 핵심은 '서시'로 일종의 씨앗곳에 해당한다.

임우기 평론가는 시집에 대해 "서사시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반제 민족해방투쟁에서 산화한 탄광 노동자들과 전라도 화순 지역 주민들의 님을 위무하는 진혼가"라며 "도도한 민중사의 흐름 속에서 반제국주의 이념의 현재적 의의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눈빛 들었다는 관람평 기억 남아"

지난 3일 개봉 '비상선언' 임시완
"표정 수반한 감정 찾으려 노력"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비상선언'의 호화 출연진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진석을 연기한 임시완(사진)이다. 그는 눈빛과 표정만으로 테러리스트의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재립 감독은 "테러영화 아닌 재난영화"라며 진석을 "재난의 상징"으로 봤다고 했다. 이 같은 연출 의도에 따라 진석은 예상과 달리 조금 빨리 이야기에서 퇴장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 캐릭터의 강렬함을 더하는 것도 사실이다.

8일 화상으로 만난 임시완은 "조명 문제로 그렇게 나온 것 같지만 '눈빛이 들었다'는 관람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표정 연기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니다. 표정을 수반하는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상이 아닌 캐릭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순간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떤 당위성을 갖고 이렇게 큰 일을 벌였을지 생각하며 시작했어요. 진석이 나를

의 실험정신을 가지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이고 서늘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생화학 전문가이자 소시오패스 성향의 인물인 진석은 하와이행 항공기에 치명적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진석의 과거는 물론 기내에서 제압된 이후 상황도 대거 생략됐다. 임시완은 "당위성이 흐릿하기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진석이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는 생각으로 개인적 서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화제가 된 진석의 눈빛은 기내 화장실에서 재혁(이병헌 분)의 딸 수민(김보민)을 마주치는 장면에서 가장 돋보인다. 이 장면은 원래 리허설이었던 영화에 그대로 실렸다. 임시완은 "감독님이 리허설 때도 실제와 비슷하게 연기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리허설이 끝나니 긴장감이 해소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연기를 시작한 임시완은 드라마 '미생' (2014)의 장그래, 영화 '변호인' (2013)의 진우, '불량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6)의 현수를 거치며 어느덧 11년 차 연기가 됐다. /연합뉴스



임재범, 국악 접목해 희망을 노래하다

7집 '세븐 콤마' 2막 발표

가수 임재범이 10일 정규 7집 '세븐 콤마'(SEVEN.)의 2막(두 번째 파트) '빛을 따라서...'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블루씨드컴퍼니가 밝혔다.

'빛을 따라서...'는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빛과 희망을 표현한 앨범이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히말라야'를 포함해 영원한 사랑의 존재를 표현한 팝&록 스타일의 노래 '우주의 전설'과 인생을 불꽃에 빚어 표현한 '불꽃놀이' 등 총 세 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히말라야'는 히말라야 꼭대기를 오르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다. 국악인 장명서가 피쳐링으로 참여했고, 사운드 측면에서도 전통 국악기 대금·아쟁이 기타 리프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블루씨드컴퍼니는 "임재범은 7년 만의 컴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 단계부터 국악인과 작업해보자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임재범만의 폭

발적인 가창력과 웅장한 스트링 연주가 압권인 노래"라고 소개했다.

임재범은 추후 3막과 에필로그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총 11곡이 담긴 정규 음반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호랭이왕국' 비소속 청년 21일까지 모집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비소속 청년들의 느슨한 연결과 소속감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는 백수들의 나라 '호랭이왕국'이 시민들을 모집한다.

이 기획은 사)청년문화허브(이사장 정두용)에서 주관으로 진행중인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호랭이스쿨'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한 문화 프로젝트이다.

호랭이왕국에서 말하는 백수는 진로탐색기 청년, N잡러, 프리터/프리커족, 독립예술가 등 여타가 고정된 곳에 소속되지 않은 비소속 청년을 지칭한다.

호랭이왕국은 어딘가 고정된 곳에 소속되지 않

은 비소속 청년들이 모여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초소형 국가(마이크로 네이션) 컨셉으로 기획됐다.

올해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문화공간,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내년에는 가상의 나라 만들기 놀이를 통해 청년문화공동체를 디자인한다.

모집 대상은 24~28세(95~99년생) 비소속 청년으로 오는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허브 블로그를 참조.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지인·정성숙·김요섭

신동엽문학상 수상

제40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최지인과 소설가 정성숙, 평론가 김요섭이 선정됐다고 창비출판사가 10일 밝혔다. 수상작은 시집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창비), 소설집 '호미' (살창), 평론 '피 흘리는 겨울: 군사주의와 피해의 남성성' (문학동네 2021년 겨울호)이다. 상금은 시와 소설 부문 각각 2000만 원, 평론 700만 원이다.

제22회 창비신인시인상은 김상희(말하는 희망) 외 4편)가, 제25회 창비신인소설상은 주영하(굴과 모래)가 각각 받았다. 제29회 창비신인평론상은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